

# 21세기 産業社會의 변화와 大學生 進路指導 방향

洪 榕 秀  
(韓國經濟新聞 論說委員)

高學歷者の 就業難이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人力資源의 효율적 活用·育成策 마련과 함께 각 産業別 人力의 需要 豫測 작업을 철저히 실행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한다. 産業社會의 급변과 긴밀히 연관된 大學生의 進路指導는 그동안의 '막연했던 지도'를 불식하고 尖端化·情報化·專門化 시대에 걸맞는 구체적 就業指導로 方向이 전환되어야 한다.

## 1. 産業社會의 變化

21세기에는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모든 領域에서 '90년대보다 많은 變化를 가져 오겠지만, 특히 大學의 進路指導(就業)와 관련이 깊은 産業社會의 變化面을 集中的으로 알아 보자 한다.

'90년대부터 우리의 産業은 國際化 時代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企業이 더욱 치열한 國際競爭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어야 하고 國際的인 經濟 블럭에도 對應態勢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美國·日本에 편중해 온 交易를 多邊化하는 戰略으로 韓·蘇 경제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헝가리를 비롯한 東歐圈 여러 나라들과의 交易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서 中國·北韓과의 經協에 있어서도 政治的인 면은 차치하고서라도 장래의 經濟的인 중요성도 결코 무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독일·프랑스 등의 EC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가 하면, 최근 美洲에서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한 덩어리가 되는 北美 經濟 블럭의 형성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트리커 교수가 연초에 *Time* 誌와의 대담에서 밝힌 "점차 經濟 블럭이 形成되고 情報文化 時代가 到來할 것이다"라는 말을 실증해 주는 셈이다.

따라서 企業은 'pro business'의 時代를 맞이하게 되고, 모든 산업 분야가 'speed & change' 시대라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國際市場에서의 우리의 과제는 輸出과 投資, 그리고 技術開發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輸出은

우리나라 GNP 의 34%, 그리고 總雇傭의 28% 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輸出産業의 育成과 支援을 위해 보다 積極的인 政策을 펴야 할 것이다.

한편, 企業은 ACC 혁명(automation, computer & communication system)에의 대응책을 강구 중에 있다. 최근 企業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採算性 악화, 노사 분류 및 기능 인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지난 해보다 더욱 O.A. 및 F.A. 시스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艱難적으로 인력의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새로운 기술과 기능 인력의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퍼스날 컴퓨터는 國內市場에 이미 100만 대 이상 보급되었고, 企業은 물론 大學 캠퍼스에서도 電算網 設置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91년부터 운영될 '컴퓨터 프로그램 유통센터'의 설립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진일보할 것이며,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대중 매체를 비롯한 情報通信의 대대적인 발전은 '93년부터 情報化 社會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産業·技術 및 貿易에 관한 정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네트워크를 총망라한 産業情報網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情報院'을 설립하고 5년간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企業은 앞으로 技術開發을 통한 高附加價値를 추구해야 하겠다. 상공부 평가단에 의한 '先進國과의 技術水準 比較檢討'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기술 수준은 40~60% 水準에 불과하고 技術開發 投資는 물론 研究人力도 크게 뒤져서 수출 침체 국면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活路를 찾기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産業技術振興協會가 駐韓外國人 經營者 260명을 대상으로 한 "'90년 韓國 經濟 및 技術環境 認識調查'에 의하면, 우리 상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의 평가에서 52.3%가 "價格面은 경쟁력이 있으나, 品質面은 경쟁력이 없다"고 대답했고, 26.3%는 "價格·品質面 모두 경쟁력이 없다"고 하였다. 두 가지 질문을 합하면 78.6%가 국제 경쟁력이 없다고 반응한 것인데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제 경쟁력 상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77.6%가 "技術開發을 통한 高附加價値 生産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불과 9.7%만이 "輸出主力 産業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53.5%가 단순 모방에서 吸收 단계에 있으며, 15%가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에 접수된 外國人 物質特許出願 상황을 보면, '88년도는 94.6%, '89년도는 93%로 外國人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89년도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연간 1,988건 중에 外國人은 93%인 1,848건이 접수되었으며, 內國人은 불과 7%인 14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外國人 접수 중에는 美國과 日本이 각각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 및 관리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技術 貿易收支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技術 輸入額은 계속 증가 추세인 반면, 技術 輸出額은 해마다 줄어들어 적자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技術 輸出額은 技術 輸入額의 1.1%에 불과하였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손으로 개발할 수 없는 尖端科學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 도입은 經濟的 發展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海外 技術依存度는 너무나 深化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상품이 주력 市場인 美國과 日本을 위시하여 東南亞, EC市場에서도 日本의 '엔貨' 弱勢에 밀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자, 가전 제품 등의 가격이 비슷한 메다 기술

〈표 1〉 우리나라의 연도별 기술 무역수지 현황 (단위: 만 \$)

연도	구분	기술 수출	기술 수입
'83		1,890	1억 5,000
'85		1,130	2억 9,500
'87		910	5억 2,300
'89		1,050	9억 3,000
연 평균		7.4%씩 감소	'83년 기준 80% 증가
평가		수입 대비 1.1%	※ 수입에 과도 치중

〈표 2〉 '89년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 현황

국가별 수출 건수	분야별 수출 건수	분야별 수출액
인도네시아	5(건)	화학(37.9%) 11(건) 화학(66.7%) 700(만 \$)
일본	3	
태국	3	
핀란드	2	전기·전자(34.6%) 10 식품(2.2%) 23
말레이시아	2	섬유(10.3%) 3 전기·전자(1.8%) 18.8
대만		기계(17.2%) 5 기계계(0.4%) 4
미국		기타(28.9%) 300
스위스 등 14개국	14	
계	29	— 29 — 약 1,050

〈표 3〉 '89년 우리나라의 기술 수입 현황

국가별 수입 건수	분야별 수입 건수	분야별 지급액
일본 (45%)	433(건)	전기·전자(30.3%) 231(건) 전기·전자(41.7%) 3억 8,800(만 \$)
미국 (32%)	244	기계(22%) 168 기계계(17.9%) 1억 7,000
프랑스 (5.4%)	41	화학(19.7%) 150 화학(16.3%) 1억 5,100
서독 (4.8%)	37	섬유(7%) 56 전력(9.5%) 8,800
영국 (3.0%)	23	식품(3.4%) 26 섬유(5.9%) 5,500
		금속(3%) 23
		기타
계	778	— 654 — 9억 3,000

〈표 4〉 '89년 해외 기술 의존도 비교

(단위: %)			
한국	미국	서독	일본
28.3	1.6	5.9	6.1

이 뒤따르지 못해 輸出役軍들은 전쟁 아닌 전투를 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一大警鐘을 울려주고 있다.

따라서 政府는 '90년대부터 技術開發과 더불어 高附加價値 商品을 생산·수출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精密電子, 精密化學, 航空機産業 등 66개 업종의 尖端産業에 대한 기술 지도, 융자, 세금 혜택 등의 많은 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育成을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韓·蘇간의 정상 회담 개최 이후 소련의 科學技術을 검토·분석하여 국내 산업에 활용하는 문제도 연구중에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中小企業 育成을 위한 行政·

金融·技術指導 및 稅制 혜택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5,000개의 中小企業을 적극 지원하여 1999년까지 5만 개의 模範 中小企業을 만든다는 계획이 진행중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매년 500개의 中小企業을 세계 일류 中小企業 수준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創業業務를 돕기 위해 商工部·中小企業中央會·中小企業振興工團·創業諮問會社 및 創業投資金融會社 등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20세에서 40세까지 비교적 젊은 층이 전자·전기·기계·화학 분야 등에서 창업을 주도할 경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高學歷者가 就業難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中堅職業人들의 월급 봉투로 'Small Co.'의 主人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과거보다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創業 관계 專門學院과 자문 기관

이 40 여 개에 이르고 創業投資會社도 25 개사에 달하고 있다.

## 2. 職業社會 變化의 對應策

### 1) 專門職이 認定받는 社會

2000 년대는 情報化 時代인 동시에 테크노크라트(technocrats) 社會로서 專門職이나 尖端職에 종사하는 職業이 가장 認定받는 社會가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事務室에서 管理하는 화이트 칼라 時代로부터 그레이 칼라 時代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女性의 '90 년대 有望職業으로서의 디자인 분야와 言語 관련 직업이 專門職業으로서 個性化·國際化 時代에 알맞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特性學科도 專門技術도 專門化 時代에 빛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분야의 專門職이라 할지라도 實力이 없으면, 社會로부터 認定을 받을 수 없다. 時代는 必要호로 보다 나은 技術을 消費者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水準까지 만들 수 있는 技術을 연마하여야 한다.

### 2) 資格證이 認定받는 社會

專門職이 인정받는 時代와 더불어 지금보다는 資格證을 가진 사람이 훨씬 社會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매년 資格證 소지자는 2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90 년말이면 약 200 만 명이 될 것으로 推算된다. 현재의 학벌 위주 卒業證 社會에서 能力 위주로 평가받는 資格證의 認定時代가 올 것이다.

### 3) 컴퓨터 活用 社會

어떤 職務에 종사하는 간에 컴퓨터를 조작해서 業務에 임하는 職業社會가 될 것이다. 단순한 조작에서뿐만 아니라 각자 業務에 필요한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는 다룰 수 있으면 더욱 能率을 倍加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잡·다양한 情報의 신속한 수집·분석 및 對策은 단순한 人力보다는 컴퓨터의 情報 시스템 活用이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도구이다. 앞으로는 컴퓨터의 活用方法을 모르면 새로운 文盲으로 지적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

다고 본다.

### 4) 既婚女性의 職業時代로의 進入

男性 위주의 職業社會에서 未婚女性을 일부 참여시킨 시대였지만, 지금부터는 女性도 平生 職 개념의 일환으로 未婚에서부터 시작한 職業이 결혼 후에도 계속되고 또 需要가 있으면 既婚女性도 職業社會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專門職에 종사하는 女性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표방하는 이상 韓國도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女性人力이 産業社會의 雇傭構造面에 많은 部分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90 년 2 월 현재 專門職에 종사하는 인원 수는 1,505,000 명으로 이 가운데 男性이 961,000 명(63.9%), 女性은 544,000 명(36.1%)이다. 전문직 여성이 '83 년의 26.6%, '89 년의 34.4%에 비해 女性 專門人力이 점점 신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教育·産業·行政·研究·醫僚·言論·法曹系 등 技術 및 管理職에 종사하고 있어 先進國의 職業型을 닮아가고 있다.

### 5) 2000 年代 美國의 有望職種

미국의 科學雜誌인 「옴니」에서 발표한 2000 년대 美國의 유망 직종은 未來學者, 大學의 취업 카운셀러, 經濟學者, 科學技術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필요한 모든 情報資料를 축적·관리해서 컴퓨터에 수록하는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측량이나 미세 수술 전문가, 인쇄 전문 레이저 技術者, 그리고 컴퓨터와 정보 통신 기기 및 가전 제품 등의 디지털화에 따라 需要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디지털 技術者, 火災가 企業經營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건물과 비품, 기기, 공장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火災防護技士, 많은 기억 용량과 보다 빠른 속도로 복잡한 문제들을 풀이하는 슈퍼 컴퓨터와 관련된 人工知能技士,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高齡人口의 증가에 따른 老人醫學 전문가와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도덕·윤리·철학 등을 이끌어 갈 人間科學者와 專門教育者 등이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 인

구가 급증하고 식량 부족에 대비한 海洋牧場, 海底農業開發 등에 전문가인 어류·해조류 양식자 및 무한한 宇宙開發을 위한 宇宙技術者 등도 유망하다.

### 3. 向後 大卒者의 就業環境 變化

實業系 高校의 증설·증원 및 人文系 高校의 就業班 운영 등 大入 위주에서 進路敎育으로 전환한 高校 敎育體制의 全面改編과 專門大學의 집중적인 증설이 政府와 與黨 간에 이미 政策決定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大學 卒業者의 就業率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要因이라고 본다('95년까지 實業高 12만 명, 專門大 6만 명 증원 문제와 서울대 등 國·公立大와 私立大에 理工系 夜間大學을 새로이 증설하는 것을 檢討中임).

4년제 大學의 人文系 T/O가 동결되고 自然系 위주의 T/O가 증가되는 政策方向이 이미 결정되어 앞으로 技術系 大學이 증설되고 인원이 늘면, 상대적으로 人文系 大卒者나 大學院 卒業者의 就業領域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90년 상반기 大卒公採 실태를 보면, 지난 해는 人文系 대 自然系 채용 비율이 대체로 40% 대 60%였으나, 하반기에는 인문계를 크게 줄여 20% 대 80%로 채용한 업체가 많다. 물론 상반기에 企業마다 '管理革新'을 전개하면서 大企業에서는 管理職을 대개 30% 정도 줄여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한 여파도 있지만, 例年보다 經歷社員의 채용을 보다 많이 하고 신규 사원의 채용에서도 研究·開發과 기술 인력의 채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政府가 이미 확정된 尖端科學 66개 중의 集中育成政策에 따른 인력과 技術開發 등에 필요한 사업을 고려한다면, 高卒, 專門大卒, 大卒, 大學院卒까지의 자연계 人力需要가 인문계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질 전망이다.

人文系 高校의 就業班, 實業系 高校 그리고 專門大學 등에서는 학교 당국이 就業輔導 업무에 적극적이며, 학생 자신도 就業準備를 위해 어학, 컴퓨터, 기타 각종 資格證의 획득 또는 敎育訓練을 받음으로써 職務分析과 資格要件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은 企業 또는 機關에서 大

卒者보다 상대적으로 賃金 水準이 낮은 學歷者를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D企業에서는 2년 전부터 大卒採用 T/O를 크게 줄여 專門大 졸업자를 채용하고, 專門大學 採用 T/O를 高卒에 많이 넘긴 예가 있다.

한편, 勞働部에서는 현재 全國에서 연간 1만 명의 職業訓練生 배출 인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그들에 대한 현재의 需賃는 4만 명인데 비하여 供給은 1만 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91년부터는 大學 卒業者 중 人文系 출신으로서 未就業者에 대한 컴퓨터 敎育을 실시하여 大卒 就業難에 도움을 주고자 方針을 세우고 있다.

최근 企業에서는 근로자의 사기 양양과 전문 인력의 자체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社內專門大學, 社內大學, 社內大學院 등을 설치하는 예가 '90년에 들어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文敎部에서는 현재 平生敎育의 일환으로 이러한 유형의 대학들을 開放大로 發展시킬 肯定的인 檢討를 하고 있는데, 學歷認定이 되면 開設할 企業數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企業에 開設된 社內大學 등은 다음과 같다.

- ① 韓進그룹: KAL·造船公社에 社內大學 開講
  - ② 大宇그룹: 亞洲大·金烏工大에 委託敎育 實施
  - ③ 三星그룹: 三星電子(情報通信部門, 半導體部門)·第一毛織에 社內大學 開講, 二星重工業·三星코닝에 社內專門大學 開講, 家電·情報通信部門에 大學院 開講
  - ④ 現代그룹: 현대엔지니어링(주)에 社內大學院 開講, 현대해상火災保險(주)에 社內大學院 開講
  - ⑤ 韓電技術(주): 社內 技術大學院 開講
- 企業은 올해부터 특히 既存社員들의 능률 배가를 위한 敎育訓練에 投資를 크게 늘리고 있다.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고 발전하기 위해 自動化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生産性 向上을 위한 敎育訓練을 통해 全天候 專門人力으로 양성하는 한편, 勞使紛糾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의 厚生福祉에 최대한 배려하는 대신 人力을 최대한 節減하려는 經營方針을 고수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표 5〉 주요 그룹별 연구·개발 투자 계획

(단위: 억 원)

그룹	'89년	'90년	주요 연구·개발 분야
三星	5,000	6,000	반도체, HDTV, ISDN, 로봇, 공작기계, 파인세라믹스, 항공기, 항암제진단시약
現代	3,200	5,000	신도넨차량, 반도체, 로봇특수강, 파인세라믹스, 정밀기계
麗晶	3,500	4,500	반도체, 정보통신, 컴퓨터유전공학, 생명공학, 신소재, 에너지
大宇	2,000	3,000	시스템키친 등 HA 설비, FA 시스템, HDTV, 무빙퀵리 TV
鮮京	400	450	신소재섬유, 비디오테이프, 고기능성분리막, 의약품, 특수엔지니어링플라스틱
雙龍	400	700	자동차 및 선박용엔진, 세라믹 등 첨단무기소재, 특수시멘트, 인공지능(AI), 특수운활유, 정보통신
韓國火藥	300	300	FA기기, 생명공학, 정밀기계, 정밀화학
起亞	1,200	2,300	고유모델차량, 특수강, 항공기부품, 메카트로닉스
浦鐵	680	990	신철강기술, 철강신소재, 정보통신
斗山	350	700	유전공학, 생명공학, 의약품, 신소재, 정보통신
曉星	360	400	고기능성 섬유소재, 특수기능성 고분자, 금속재료, 정보통신
韓一	350	590	제약, 반도체, 생명공학
三美	280	300	특수강소재, 파인세라믹스, 특수반도체
코오롱	280	300	하이테크섬유, 정밀화학
東國製鋼		500	파인세라믹스, 철강신소재

따라서 기업에서는 敎育訓練에 投資가 크게 늘고 있고(예: 三星...지난 해 250억 원에서 올해 370억 원으로 책정, KAL...150억 원, 선경...120억 원, 大宇...250억 원), 企業의 研究·開發費도 지난 해보다 20~90%가 증가한 급팽창 계획을 세우고 있다. 經濟難 타개는 오직 技術革新뿐이라는 新思考에서 사업 전망이 밝은 尖端 業種에 집중해서 연구·개발할 방침인데 三星그룹은 6,000억 원, 現代그룹은 5,500억 원, 麗晶그룹은 4,500억 원, 大宇그룹은 3,000억 원을 계상하고 있다. 그 외 쌍용, 기아, 포철, 두산, 한일, 동국제강도 지난 해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企業은 國際化 時代에 맞는 철저한 人力의 生産性 管理로 손실을 최대한 배제하고, 초기 採用 단계부터 철저한 企業化에 전형적인 가일층 강화하리라고 전망된다.

#### 4. 高學歷者의 就業 實態

##### 1) 4년제 大學의 就業率

'90년도 大學 卒業者 167,255명 중 進學 및 軍 入隊者 등을 제외한 就業 대상자 132,627명의 60.5%에 해당하는 80,263명 정도가 취업하여 '89년도에 비하여 3,669명이 증가하였으나, 就業率은 1.9%가 낮아져 就業難이 계속되고 있다.

〈표 6〉 대졸자의 연도별 취업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졸업자	137,848	149,582	161,983	166,845	167,255
취업 제외자	45,628	46,187	44,733	44,059	34,628
취업 대상자	92,220	103,395	117,250	122,786	132,627
취업자	51,667	60,718	70,732	76,594	80,263
취업률(%)	56.0	58.7	60.3	62.4	60.5

- 취업 대상자: 진학·군입대·유학·이민 등을 제외한 취업 희망자.
- '89. 8월 졸업생 및 '90. 2월 졸업생 기준.
- '90. 4월 1일 현재 취업 현황임.

〈표 7〉 대졸자의 지역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졸업자	서울		57,589	53,275	54,262	53,539	54,498
	지방		80,259	96,307	107,722	113,306	112,757
취업제외자	서울		21,407	17,691	16,967	15,648	13,435
	지방		24,221	28,496	27,766	28,411	21,193
취업대상자	서울		36,182	35,584	37,294	37,891	40,063
	지방		56,038	67,811	79,956	84,895	92,564
취업자	서울		23,101	23,534	26,096	28,027	28,962
	지방		28,566	37,184	44,636	48,567	51,301
취업률(%)	서울		63.8	66.1	70.0	73.9	72.2
	지방		51.0	54.8	55.8	57.2	55.4

〈표 8〉 대졸자의 계열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인문계		6,250 (40.8%)	8,667 (48.4%)	10,303 (50.2%)	11,038 (54.1%)	11,955 (50.9%)
사회계		14,259 (63.4%)	17,043 (65.3%)	20,870 (65.4%)	22,209 (66.9%)	23,251 (62.3%)
자연계		18,727 (61.9%)	26,390 (62.7%)	24,955 (65.2%)	27,265 (65.6%)	28,867 (65.0%)
예·체능계		2,618 (43.7%)	3,336 (50.8%)	3,920 (52.2%)	4,582 (56.0%)	4,567 (55.7%)
의학계		3,750 (93.8%)	4,487 (92.6%)	4,702 (93.3%)	5,405 (92.5%)	5,313 (91.4%)
사범계		6,073 (42.8%)	5,845 (41.9%)	6,982 (42.7%)	6,095 (43.1%)	6,310 (46.8%)

※ 사범제열 '90년 9월 임용 예정자 1,800명(60.1%)

〈표 9〉 대졸자의 성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졸업자	남		87,241	91,742	103,279	107,009	106,062
	여		50,607	57,840	58,704	59,836	61,193
취업제외자	남		32,047	30,840	29,376	31,766	25,616
	여		13,581	15,347	15,357	12,293	9,012
취업대상자	남		55,194	60,902	73,903	75,243	80,446
	여		37,026	42,493	43,347	47,543	52,181
취업자	남		38,119	44,857	53,268	56,319	58,622
	여		13,548	15,861	17,464	20,275	21,641
취업률(%)	남		69.1	73.7	72.1	74.8	72.9
	여		36.6	37.3	40.2	42.6	41.4

地域別 就業에서는 서울 소재 大學 出身者 28,962 명이 취업하여 就業率은 72.2%로 지난해보다 1.7%가 낮아졌고, 地方은 51,301 명이

취업하여 就業率은 오히려 55.4%로 1.8%가 낮아졌다. 系列別 就業率을 보면 醫學系列 91.4%, 自然

〈표 10〉 전문대학 졸업자의 연도별 취업률

구 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인 원	비율 (%)	인 원	비율 (%)	인 원	비율 (%)	인 원	비율 (%)	인 원	비율 (%)	인 원	비율 (%)	인 원	비율 (%)	인 원	비율 (%)	인 원	비율 (%)	
졸업자	57,580		60,208		74,476		68,379		72,616		76,814		81,083		82,409		83,855		
취업준비대	7,574		15,379		20,360		15,151		16,501		20,019		21,170		21,282		19,603		
대상 제외자	3,509		4,718		4,414		4,477		6,992		6,440		6,775		5,390		6,134		
계	11,083	19.2	20,097	33.4	24,774	33.3	19,631	28.7	23,496	32.4	26,459	34.4	27,945	34.5	26,672	32.4	25,737	30.7	
취업대상자	46,497		40,111		49,702		48,748		49,120		50,355		53,138		55,737		58,118		
취업자	12,554	27.0	17,118	42.7	26,853	54.0	27,482	56.4	32,820	66.8	35,446	70.4	39,678	74.7	42,506	76.3	46,143	79.4	
종업계	5,572		7,337		10,739		10,609		10,734	73.3	10,351	78.6	12,123	84.8	13,338	86.5	14,693	87.7	
농업계	535		672		700		722		984	58.6	1,066	66.5	1,265	74.6	1,219	66.0	1,321	74.1	
수·해양계	223		192		233		280		247	69.9	264	66.8	262	68.8	620	84.4	424	73.5	
보건계																			
간호계	2,146		2,738		4,293		4,992		6,367	73.2	6,337	64.9	3,203	70.6	3,847	71.8	4,290	79.2	
가정계																			
인문사회계	4,078		6,179		10,888		10,879		14,488	60.9	17,428	68.5	19,548	73.0	14,080	80.5	15,186	82.5	
예·체능계																			
합계	12,554	27.0	17,118	42.7	26,853	54.0	27,482	56.4	32,820	66.8	35,446	70.4	39,678	74.7	42,506	76.3	46,143	79.4	

\* 주: '90년 통계는 '90. 7월경 취환된 예정인(문교부).



〈표 11〉 '89년 50대 그룹·기업 대졸자 신규 채용 현황

(단위 : 명)

기 업	채 용 인 원	출신지역별 채용인원		여 성 채 용	채용방법별			계 열 별		
		서 울	지 방		공 개	추 천	기 타 (연고)	인문· 사 회	이공· 자 연	기 타 (예채능)
계	24,056	14,978	9,078	1,143	19,250	4,558	248	10,690	13,270	96
삼성	4,240	2,890	1,350	50	4,240	—	—	1,240	3,000	—
현	3,204	1,946	1,258	40	2,856	348	—	1,165	2,039	—
럭 키	3,607	2,090	1,517	79	3,137	470	—	1,221	2,386	—
대 금	2,417	1,610	807	99	1,945	402	70	982	1,435	—
선 경	488	367	121	—	—	488	—	282	206	—
쌍 용	807	505	302	29	543	264	—	383	424	—
한 진	1,081	666	415	417	775	265	41	868	207	6
효 성	320	240	80	6	320	—	—	140	180	—
한 국	667	435	232	65	631	33	3	338	315	14
신 동	663	398	265	3	566	71	26	611	44	3
동 아	413	183	230	10	259	149	5	246	158	9
롯데	390	229	161	22	331	43	16	203	178	9
기 아	961	510	451	5	883	78	—	319	642	—
두 산	379	260	119	9	—	379	—	194	185	—
태 광	150	65	85	4	10	130	10	47	95	8
동 국	131	48	83	5	62	63	6	62	69	—
동 부	670	516	154	19	592	78	—	518	146	6
코 오	526	396	130	17	168	358	—	316	210	—
한 일	113	51	62	11	—	113	—	67	39	7
삼 미	52	17	35	10	21	18	13	26	24	2
조 양	130	41	89	1	27	101	2	101	26	3
대 션	233	163	70	1	222	11	—	69	164	—
미 원	140	48	92	4	—	140	—	64	76	—
금 호	524	295	229	123	440	84	—	372	137	15
화 승	110	62	48	14	60	44	6	74	36	—
해 태	122	47	75	6	108	14	—	68	54	—
강 원	18	12	6	2	—	17	1	10	8	—
풍 산	22	7	15	—	—	18	4	8	14	—
법 양	20	11	9	—	19	—	1	16	4	—
동 국	29	22	7	1	29	—	—	23	6	—
삼 양	107	65	42	2	82	25	—	49	58	—
대 환	73	48	25	—	68	5	—	19	54	—
고 려	35	22	13	2	35	—	—	12	23	—
테 평	36	20	16	4	26	6	4	26	9	1
대 양	61	41	20	15	51	6	4	28	28	5
동 양	234	170	64	21	119	97	18	157	75	2
충 남	40	13	27	—	20	16	4	24	16	—
동 남	10	3	7	—	—	—	10	3	7	—
삼 양	34	10	24	6	—	34	—	15	19	—
삼 환	49	31	18	—	11	38	—	6	43	—
한 양	88	50	38	1	75	13	—	42	46	—
봉 성	9	4	5	—	—	5	4	4	5	—
대 성	160	84	76	16	160	—	—	38	122	—

기 업	채 용 인 원	출 신 지역 별 채용 인원		여 성 채용	채용방법별			계 열 변		
		서 울	지 방		공 개	추 천	기 타 (연고)	인문·사회	이공·자연	기 타 (예채능)
농 식	93	38	55	—	93	—	—	64	29	—
벽 산	61	42	19	—	61	—	—	19	42	—
한 보	27	15	12	4	—	27	—	19	7	—
등 양 화 학	100	69	31	2	—	100	—	38	62	—
삼 도 물 산	56	39	17	7	49	7	—	40	16	—
등 양 경 밀	61	40	21	1	61	—	—	8	53	—
등 아 제 약	95	44	51	10	95	—	—	46	49	—

系列이 65%로 전체 평균 취업률보다 높다. 師範系列은 46.8%로 가장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의 43.1%에 비하면 3.7%가 높아졌고 '90년 9월초에 中等敎員 1,800명이 증원·임용되면 就業率は 더 높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性別 就業率을 보면 男子가 72.9%로 지난해에 비하면 1.9%가 낮아졌고, 女子는 41.4%로 1.2%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9년도 經濟企劃院의 經濟活動 人口調査에서도 전체 실업자 459,000명 가운데 專門大 이상 高學歷 失業者가 25.2%로 나타났다.

## 2) 專門大學의 就業率

'90년도 專門大學의 就業率은 '89년도에 비해 훨씬 上向된 수치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84년 이래 最高의 實績이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89년도까지의 專門大 就業率 統計를 보아도 4년제 大學의 就業率보다는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專門大學과 4년제 大學과의 현격한 취업률 차이는 專門大 졸업자의 보다 많은 軍入隊者를 제외한 탓도 있지만, 최근 수년 동안 專門大學의 就業率이 크게 上向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전문대학이 産業需要와 직무상의 資格要件에 비교적 맞는 敎科課程의 편성과 敎育方畵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3) '89년 50大 그룹·企業의 大卒 新規採用 現況

人文·社會系와 理工·自然系別 채용에서도 비교적 채용 인원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개

30~40%의 비율로 人文·社會系를 채용하고 있는데, '90년 上半期에는 인문·사회계의 채용이 더욱 감소되었다.

서울과 地方의 채용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地方大生은 差別 採用되고 있다. 특히 '90년도에는 政府 投資管理 업체의 채용에 地方大 졸업생이 일정 비율로 채용되도록 종용했으나, 일반 大企業까지 의무화하지 않은 이상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女性 採用의 경우는 극심할 정도의 차별 채용 실태를 統計에서 엿볼 수 있다. 男女雇傭 平等法에 의한 採用廣告上의 性 差別 是正訴訟에서 비록 勝訴한 판결이 나왔지만, 일정 비율로 채용하도록 제도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就業率이 크게 上昇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企業이 필요로 하는 專門職에 대한 準備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5. 大學生의 進路指導 方向

### 1) 4次元的인 大學의 任務

졸업 후 就業問題가 大學 在學生의 머리 속에 최대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0년 2월에 졸업한 大學生의 就業統計(文敎部)를 보면, 전체 졸업자 167,255명 중 大學院 進學, 軍入隊者 등 就業除外者 34,628명을 뺀 나머지 132,627명 가운데 불과 60.5%인 80,263명이 就業된 것으로 나타나 약 40% 가까운 大卒生이 卒業과 동시에 '失業者'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음은 當事者는 물론 國家社會의 큰 損害로서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就業率을 보더라도 '86년 56.0%, '87년 58.7%,

〈표 12〉 고급 산업 기술 인력 수급 전망

기 술 분 야	기 계	전기전자기	재료금속	화 공	기 타	계
'90~'94 (5년간) 신규인력수요	120.9	127.4	39.9	45.9	53.5	(천명) 387.6
제조업분야	20%	21%	22%	35%	29%	33%
산업기술인력공급실태	24.4	61.7	8.6	15.9	15.4	126.0
공급인력부족	96.5	65.7	31.3	30.0	38.1	261.6
연평균 "	19.3	13.1	6.3	6.0	7.6	52.3
'89입학정원	13.2	37.5	5.1	8.9	6.2	70.9
정원조정 (조정 비율)	32.5 (2.5배)	50.6 (1.3배)	11.4 (2.2배)	14.9 (1.7배)	13.8 (2.2배)	123.2 (1.7배)

\* '90. 4.26 상공부 조사 발표.  
전문대졸 이상 대상.

'88년 60.3%, '89년 62.4%, 그리고 올해는 60.5%로서 계속 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就業의 現實 속에서 大學이 大學 本然의 임무인 學問道場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大學은 ① 敎科課程에 대한 充足한 敎育은 물론, ② 就業 등 進路에 대비한 보다 積極的인 指導를 해야 하며, ③ 優秀 고교생을 유치하기 위한 充足한 弘報活動도 수반하여야 하고, ④ 學園의 正常化를 위한 健全한 大學經營을 통해 學園內의 民主化와 安定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2) 政府(文敎部) 當局과 大學의 政策的 檢討 事項

人力需要 예측 작업에 따른 育成政策이 必要하다. 적어도 10년 앞을 바라보는 人力需要 豫測作業을 하고, 매년 約간씩 조정 작업을 하여 人力活用に 필요한 T/O를 算出하고 學科別로 육성한다면, 人力需給의 不均衡도 최대한 시정되고 雇傭 사정도 지금보다는 尠 惡化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政府는 産業需要 등 전반적인 國內 人力市場 動向을 거의 무시하고 一方으로 '교육의 100년 大計'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産産에만 치우치고, '人力의 活用'이라는 大前提를 외면하여 왔다. 따라서 大卒生의 質의 問題가 거론되고 就業 希望者의 약 40%가 '就業 再修生'이라는 별명이 붙어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 큰 損失을 가져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大卒生의 就業難

은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으며, 尖端科學 등 일부 학과 졸업생은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異變을 낳기도 하고 있다. 經營을 合理的으로 이끄는 企業의 대다수는 해당 프로젝트에 投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연구를 한 후 企劃에 착수한다는 大原則을 생각하면 이러한 예측 작업의 必要性은 쉽게 이해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政府(文敎部)는 반드시 需要豫測 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政府는 부존 자원이 빈약한 韓國에서의 人力資源이 얼마만큼 重要한가를 재음미하고 이의 效率인 活用과 育成을 전담할 '韓國人力開發院' 형태의 獨立機構 설립과 體系的인 運營이 필요하다고 본다.

'93년 이후의 情報化時代와 2000년대의 尖端科學이 지배하는 시대에 맞는 人力의 開發은 人文·社會系보다 理工·自然系 쪽으로 크게 비중을 높여 育成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인 바, 이에 대한 漸進的인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표 12〉의 商工部 조사에서 부족한 技術人力 연 평균 52,300명씩(5년간)을 理工系 大學에서 대폭 증원하도록 文敎部에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研究職 및 技術職 인원은 619,500명인데 生産現場의 中견 기술 인력 169,500명까지 합하면 789,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外國과 비교하면 우리의 技術人力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참고로 大卒 이상 一般研究員('87년 기준)은 韓國이 52,800명으로서 人口에 비하면 12.5명이 되는 셈인데, 美國은 人口比 33명(806,200명), 日本은 人口比 34명(441,900

명), 그리고 臺灣은 人口比 13.9명(24,600명)이나 된다.

한편, 産業技術振興協會가 조사한 尖端技術人力 碩·博士級 需要는 다음과 같다.

· 碩上級 :	'90~'91	1,298명	공급 부족
	'92~'96	10,202명	"
	'97~2001	22,547명	"
· 博士級 :	'90~'91	359명	공급 부족
	'92~'96	1,297명	"
	'97~2001	3,616명	"

〈표 13〉에서 보면 '89년말 749개에서 '90.5월말 현재 58개가 늘어 807개로 되었다. 이 중 大企業 附設研究所는 221개, 中小企業은 486개나 되는데, 지난 해부터 中小企業들의 研究所 設立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地域別로는 서울 243개, 인천 63개, 경기 261개, 강원 4개, 대전 22개, 충남 16개, 충북 19개, 대구 29개, 경북 31개, 부산 22개, 경남 70개, 광주 9개, 전남 9개, 전북 9개 등으로 전체 2/3 가량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전국 기업 부설 연구소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은 지난 5월말 현재 23,829명으로 博士學位 소지자는 519명, 碩士 5,698명, 學士 17,613명이다.

規模別로 보면 300명 이상의 研究員을 보유

〈표 13〉 기업체 부설 기술 연구소의 급증 ('90.5월 현재)

업종	연구소(개)	연구인원(명)
기계·금속	196	7,081
전기·전자	289	9,894
화학	210	4,334
식품	42	985
섬유	20	691
기타	50	844
계	807	23,829

하고 있는 研究所는 8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27개, 30~99명까지 104개, 10~29명까지 369개, 5~9명이 299개로 전체의 80% 정도가 研究員 30명 미만의 소규모이다.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가 발간한 「'89 中小製造業 技術實態 調查報告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분야별 신규 수요 전망을 보면 다음과 같다.

經總에서 실시한 "'90년도 新規採用 展望에 대한 標本調査' 결과를 보면, 事務職은 技術職에 비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감소 추세가 크리라고 예상되는 原因은 賃金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採算性 악화와 自動化 시스템이 확대되고, 따라서 인력 감소 및 경기 둔화로 稼動率이 저하되며 新規投資가 억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14〉 중소기업의 기술 분야별 신규 수요 전망

(단위:명)

구분	계		기술계		기능계	
	'90	'91	'90	'91	'90	'91
계	265,983	208,623	24,840	21,583	241,143	187,040
기계	63,357	47,841	6,579	6,814	53,778	41,027
금속	7,068	5,255	1,589	1,952	6,379	4,303
화학	27,727	27,553	2,092	2,042	25,635	25,511
전기·전자·통신	15,033	12,161	2,681	1,326	12,352	10,842
조선	536	713	76	68	460	645
섬유	65,257	45,321	1,926	1,385	63,331	43,936
정보처리	237	195	48	39	189	156
에너지	1,235	636	584	273	651	358
산업응용	37,224	32,817	1,569	1,349	35,655	31,468
관리	5,652	5,213	5,652	5,213	—	—
기타	44,757	30,918	2,044	2,123	42,713	28,795

\* 종업원 300명 미만 기업 대상.

〈표 15〉 경총 '90년 신규 인력 채용 전망

(단위 : %)

구 분	대 줄		전문대졸	고 줄 이 하		평 균
	사무직	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전 체 산 업	△3.5	4.0	0.1	△11.5	△8.5	△6.9
광 업	△24.1	△20.4	△17.6	△26.6	△3.8	△0.3
제조업	△5.0	4.8	0.2	△12.5	△9.0	△7.6
건설업	△2.6	6.9	△2.0	△5.9	6.7	1.8
도산배·숙박	△4.0	1.9	9.5	△5.5	△3.9	△2.7
운수·창고	△9.3	2.5	△1.9	△8.1	△3.9	△4.8
금융·보험	6.0	7.6	6.6	△6.2	—	3.8

\* 조사 대상 : 종업원 50명 이상 전국 831개 업체 표본 조사('90.5)

한편, 大學 敎育課程의 改編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産業社會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敎育課程을 검토하고 개편하는 한편, 실현·실습과 현장 적응에 필요한 敎授와 學習方法을 강화해야 하겠다.

'89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産業人力 就業實態 調査報告書」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大學의 敎科編成 體系'에 대한 의견은 閉鎖的인 學科 中心의 敎育과정 편성으로 學問系 列間·學科間의 連繫性과 共通性이 부족(33.2%)하고, 學科의 性格에 따른 敎育機關別(專門大學, 大學, 大學院 등) 배분이 부적합(18.3%)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學科 編成의 細分化和 類似學科의 重複, 이밖에 産業系 需要에 대응한

未來指向的인 첨단 산업 분야 등에서의 學科設置가 결여되어 있어 이를 補充할 수 있도록 敎育課程을 보다 體系的으로 改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産業現場에서 필요로 하는 訓練된 專門人力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大學을 分野別·地域別로 特性化시키고, 특수 분야의 人材養成을 위한 特殊敎育機關의 확충이 뒤따라야 하겠다고 분석했다.

최근 文敎部가 검토중인 '大學評價認定制度'가 만약 앞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필히 學生들의 進路指導에 대한 점검 항목과 이에 상응하는

〈표 17〉 산업 인력 공급과 대학교육에 대한 의견

구 분	구성비 (%)
· 산업계의 발전 추세에 대응해 직업교육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0
· 전반적으로 인력 공급이 과잉 상태이지만 질적 수준은 저하되고 있다.	28.0
· 산업 현장에는 활용되기 어려운 이론 교육에만 치우쳐 있다.	18.3
· 첨단 산업 부문 등 새물결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에서 필요 인력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	9.4
· 학계와 산업계 사이에 협력 교육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 양성·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3.1
· 대학별로 특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6.2
· 기 타	2.2
계	100.0

〈표 16〉 대학의 교과과정 편성 체계에 대한 의견

구 분	구성비 (%)
· 학과 편성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유사 학과가 중복되어 있다.	15.4
· 학과의 성격에 따른 교육기관별 배분이 부적합하게 되어 있다.	18.3
· 학과 설치가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산업계 수요와 관계없는 학과가 많다.	13.9
· 폐쇄적인 학과 중심의 敎育과정 편성으로 학문계열간·학과간의 연계성과 공동성이 부족하다.	33.2
· 미래지향적인 첨단 산업 분야의 학과 설치가 결여되어 있다.	13.0
· 기 타	6.3
계	100.0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 인력 취업 실태 조사 보고서, '89.4.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 인력 취업 실태 조사 보고서, '89.4.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大學에서는 學生들의 소오 방지에만 신경을 쓰고 그들의 장래에 대한 進路指導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 3) 大學生 進路指導

#### (1) 將來를 위한 進路指導 方向

大學 또는 大學院 卒業生의 대부분은 進路方向을 거의 就業에 두고, 장래에 기회가 오면 創業까지 할 수 있는 方向으로 進路指導를 해 보는 방법이 바람직하겠다. 물론 創業에서의 成功 확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事前教育은 젊은이들의 인생 설계에 큰 보탬이 되겠다. 創業과 中小企業에 대한 集中 育成策은 政府의 政策이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中小企業의 雇傭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2000 년대를 향한 專門職 教育이 결실하다. '90 년대부터 직업은 점점 細分化되고 專門化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專門人' 또는 '技術者', '尖端'이라는 글자가 붙은 職業이 아니면 별로 社會的인 認定을 못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테크노크라트 社會에 동참할 수 있는 豫備人物로 육성해야 하겠다. 또한 '90 년대와 2000 년대를 향한 有望產業과 職種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女大生에게도 平生職 概念을 도입시키고, 既婚女性의 職業時代에 대비한 職業觀 및 專門職에 대한 準備教育이 필요하겠다.

#### (2) 短期 進路指導

大學 내에 就業對策委員會를 構成하고 실제 운영의 妙를 기해야 하겠다. 따라서 就業 전담 직원은 겸직을 피하고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잦은 交替로 인한 노우 하우 축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就業指導는 첫째로 취업난이 심할수록 캠퍼스 내의 분위기 造成이 우선되어야 하고, 둘째로 學生 스스로가 "나는 꼭 就業試驗에 합격하겠다"는 강한 信念을 갖도록 해주고 就業特講의 개최를 준비해야 하며, 셋째로 就業情報室의 運營을 活性化하고, 넷째로 產學協同體制 관계의 활발한 움직임과 新規採用 人원의 확대를 위한 情報 수집 및 企業側 協助誘導에 차별

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進路指導, 특히 就業指導를 大學의 'special policy'로 확정하여 취업 문제에 관한 한 전체 교수 및 직원, 총(학)장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大學이 管理에 힘써야 하겠다. 취업 담당 先生만이 창구에서 學生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또 어떤 大學은 上位職에 갈수록 소오 방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취업 문제는 就業機構 또는 擔當先生의 發令으로 미봉책을 쓰고 있다.

취업을 위한 방향 설정과 정보 수집이 빠르면 빠를수록 準備期間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新入生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과정 또는 在學生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上半期의 '취업 준비 要領'에 관한 綜合的인 就業特講 개최와 영어·상식 등의 특강도 바람직하다.

下半期인 2 학기의 11 월 公探를 목표로 학년 초부터 企業의 採用傾向 및 應試戰略, 受験情報, 그리고 전형에 비교적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面接要領에 대한 특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國際化時代에 대비한 企業側의 전형 방법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特講의 重要性은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敎職員들이 學生을 상대로 指導를 하려면 就業指導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敎職員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식의 특강도 效果가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產學協同 체제의 構築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大學과 企業間에 이루어진 產學協同 體制는 企業側이 필요로 하는 일부 인력을 供給하고 취업 대상 人力을 알선하는 최소한의 協力關係 이외에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共同의 研究라든가 產業現場의 經驗的 知識을 大學으로 피이드백하는 教育 프로그램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상호 이해 부족과 인식 미흡으로 크게 發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大學과 企業이 상호 협력하는 동토를 조성하여 人的·物的 資源을 'give and take'의 次元에서 효율적으로 交流하고 그 活用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